

'본래 한 물건도 없었으니...'



18 본래무일물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무일물(無一物)' 이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집도 돈도 없는 빈털터리가 무일물입니다. 그러나 선에서는 이 말 만큼 깨달음의 상태를 훌륭하게 나타낸 말도 드물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란 우리말로 풀이하면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또는 '본래 아무 것도 없다'는 뜻으로 청정한 마음 상태, 텅 빈 공(空)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번뇌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라고 합니다. 본래무일물은 육조혜능(六祖慧能, 638-713) 스님이 처음 쓴 말입니다. 그가 입산하여 행자의 신봉으로 있을 때 어느 날 스승 오조홍인(五祖弘忍, 594-674)이 모든 대중들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뛰어난 사람을 정하여 내 법을 계승시키고자 하니, 각자 오도송을 하나씩 지어 바치라"고 했습니다.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는 대통신수(大通神秀, 606-706)였습니다. 그는 스승 홍인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바쳤습니다.

몸은 곧 보리를 기르는 나무이고 (身是菩提樹)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반질과 같아 (心如明鏡臺)
그러므로 항상 부지런히 닦아서 (時時勤拂拭)
먼지가 묻지 않게 해야 한다 (莫使有塵埃)

'육체는 깨달음(보리)을 기르는 나무와 같고 마음은

오조홍인은 아직 행자에 불과한 혜능(능행자)에게 법을 전하는 징표로 의발(衣鉢, 가사와 발우)을 주고 법을 전했습니다. 유일한 후계자로 지목받고 있던 신수의 체면은 말아 아니었습니다. 아직 계도 받지 않은 행자에게 당했으니 어안이 병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중국 선종의 제6대 조사는 신수에서 혜능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계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신수는 번뇌가 일어나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옳은 것이고, 혜능은 '본래무일물'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옳은 것입니다. 신수의 입장은 수행을 통하여 먼지(번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혜능은 본래무일물이므로 애당초 먼지가 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혜능과 신수의 계승을 잘 살펴보면 두 말이 다 옳습니다. 다만 신수의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깨달음이란 끊임없이 닦아야 하는 것이 되고, 혜능의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본래 부처인데 닦을 것이 뭐 있느냐'는 식의 오만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행자제를 부정하게 될 위험성이 큼니다.

우리는 명예나 지위 또는 재산을 얻기 위하여 많은 애를 씁니다. 욕망이란 허망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루고 지키기 위하여 갖가지 수단방법을 동원합니다. 급기야는 해서는 안 될 짓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삶의 가치를 오로지 출세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소유' '본래무일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집착으로부터 좀 떨어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선(禪)이 아닐까?

■ 윤창화 민족사 대표

혜능은 본질적으로 번뇌가 생길 수 없다는 관점 견지 "본래 부처"라는 생각은 수행 자체를 부정할 위험도

상태로서 깨달은 상태, 진리와 합일된 상태입니다. 또 '본래'라는 말 뜻 속에는 번뇌가 있었는데 제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번뇌란 없다는 뜻입니다. 선은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번뇌가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반대로 '한 물건(번뇌)'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무일물의 상태, 무소유의 상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왜 번뇌가 있게 된 것일까? 번뇌가 생기게 된 것은 사치, 허영, 시기, 질투 등 갖가지 욕망과 무지로 인하여 이물질(오염)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수행이고, 그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가 다름 아닌 깨달음입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세탁), 그것이 수행이고, 그 먼지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그것을 깨달음이

깨끗한 거울과 같다. 그러므로 항상 더러워지지 않도록 털고 닦아서 번뇌의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육조혜능은 이 계승을 보고 본질에 어긋나는 시구라고 펴 웃었습니다. 애당초 번뇌란 없는 것, 즉 본래무일물인데, 무엇 때문에 먼지가 묻지 못하도록 털고 닦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계승을 지어 법당 벽에다 붙였습니다.

보리라고 하는 나무란 본래 없는 것이고 (菩提本無樹)
명경 역시 반질대(臺)가 없는 것이다 (明鏡亦非臺)
본래 한 물건(번뇌)도 없는데 (本來無一物)
어느 곳에 티끌이 있다고 하는가 (何處有塵埃)

혜능은 신수의 계승을 완전히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생명 바칠 각오로 보살행 서원

18 용시 아가씨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미래에 용성(龍盛)부처님이 되리라는 수기(受記)를 받은 용시(龍施)아가씨 또는 용시보살은 <용시보살본기경(龍施菩薩本起經)>과 <용시녀경(龍施女經)>에 등장한다.

부처님이 비아리성의 암나루에 절에 계시는 때, 탁발을 하다가 수복(須福) 장자의 집 앞에 이르렀다. 마침 열네 살의 용시 아가씨가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부처님을 뵈고 기뻐하며, 보살행을 닦겠다고 결심한다.

이 때 악마는 용시가 큰 뜻을 내는 것을 보고, 그녀가 장차 부처가 되어서 자신의 백성을 제도할 것을 걱정한다. 악마는 용시의 아버지로 변장한 후, 불도는 얻기 어렵고 여자는 전륜성왕이 될 수 없음을 말하며 용시를 아라한의 길로 이끌고자 한다. 그러나 용시는 보살도를 받들려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 악마는 용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 더욱 애가 타서 마침내 악담까지 한다.

"만약 보살의 행을 하려면 세상에 탐내지 아니하고 생명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네가 정진하여 능히 누각 위에서 스스로 땅에 몸을 던진다고 하면, 후에 부처가 될 수도 있으리라."

용시는 이내 난간 가에 서서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말하였다.

"이제 하늘 안의 하늘(天中天)께 귀의하옵니. 일체지(一切智)로써 제가 구하는 바를 알아주소서. 생명 버리기를 청할지언정 보살의 뜻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몸으로써 부처님께 보시하오니, 원컨대 꽃을 흠뿌리듯 하여주시다."

용시가 바로 몸을 날려 누각 아래로 던졌는데, 아직 땅에 닿기도 전에 남자로 변화되었다. 부처님께 웃으시니, 5색의 광명이 입안으로부터 나와 한 부처님 세계를 비추었다. 그 빛은 도로 돌아가 부처님 몸을 세 바퀴 돌고 정수리 위로 들어갔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이 여인이야말로 전 세상 동안에 이미 만 번의 부처님을 섬겼고, 이후에는 갠지스강의 모래만큼 많은 미래의 부처님을 공양할 것이니라. 7억6000만 겁에 이르러서 부처가 될 것이니, 명호는 용성(龍盛)부처님이라 할 것이며, 그 수명은 1겁 동안이

니라. 열반하신 후에는 경전과 도가 흥성하다가 반 겁이 지나면 스러질 것이니라."

이 때 용시의 몸은 부처님 앞에 서 있었는데, 용시가 그의 부모에게 말하였다.

"원컨대 저를 놓아주시어 사문이 되게 하소서."

부모가 이내 허락하자, 안팎의 권속들이 모두 없는 도(道)를 닦겠다는 뜻을 내었다.

<용시녀경>에서 용시는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아라한을 넘어서, 일체중생을 제도해 열반에 이르렀다는 보살도를 서원하고 실천하는 전형적인 대승의 구도자로 묘사되고 있다. 용시는 전세에 닦은 인연공덕으로 부처님을 친견하자마자, "보리심을 받고 보살행을 닦아 부처님처럼 보리도를 이루리라" 서원하고 목숨을 버릴지언정 보살도는 버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온몸으로 보여준다. 이 정도의 원력이 있다면 세상에 못 이룰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는 부처님께서 전세에 설산동자로 도를 닦을 때, "모든 것은 무상하며 이것은 생명의 이치다"를

진리 위해 목숨 거는 원력 발휘 부처님 친견 후 성불 수기 받아

行無常 是生滅法"라는 계승의 뒷 구절을 듣기 위해, 절벽에 몸을 던진 후 '생과 멸이 다 소멸하고 나면 적멸한 것이 즐거움이니라(生滅滅已 寂滅爲樂)"라는 계승을 나찰귀신으로부터 듣게 된 것과 흡사하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간절함이 있다면, 깨치지 못할 화두가 없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확철대오 하려면 세 번은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나(我)라고 하는 생각,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자존심과 명예 등등, 무아(無我)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비우고 또 비우며 아상(我相)을 죽이고 또 죽이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이를 통한 대공정의 정반합(正反對)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행자들이 백 척의 높은 장대 위에서 한 발 내딛는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각오로 철저히 '거지 자기'를 죽이는 실험에 뛰어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김성우 기자(buddhapia5@buddhapia.com)

신행게시판

●자랑스런 연등 정안법회와 가족음악회대전 자랑스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족음악회를 개최한다. 5월 11일 연등 정안법회 후 곧바로 가족음악회가 이어진다. 저녁 7시 자랑스런 1층 조사전에서 열리는 가족음악회를 만기해보자. (042822-9220)

●반나리마 5월 수행=반나리마 사미 스콜이 5월 9~11일 20기 사미수행워크숍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6~8일 해운대 (금강강) 특강, 서울 수행특강 등이 열린다. 15일에는 대구수행특강, 16일에는 다보산수행특강이 열리며 19일에는 뽕밭집수행이 시작된다. 부처님오신날에는 각 지역 반나리마에서 자체 연등축제를 개최한다. 연등축제는 봉축법요식, 관공, 탁발, 공양, 창작등 만들기, 연등 밝히기, 예불 및 좌선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명상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미음동산 꾸미기'=우곡산원이 5월 10일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명상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미음동산 꾸미기' 제3기 2강을 개최한다. 중·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부 제3기 3강은 5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미음동산 꾸미기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한국청소년진흥센터로부터 인종 분은 우곡산상개발교육원의 명상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인터넷(www.wookok.org), 이메일(pusanwk@wookok.org)로 가능하다. (051740-6288)

●호두마이를 집중수행=천안 우뻘사나 명상센터 호두마일이 뻘뻘다 비람사 사야도의 지도로 집중수행을 마련한다. 5월 20~29일, 31일~6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우뻘사나에 폭 빠져들 수 있는 좋은 기회. 미안에서 초창한 뻘뻘다 비람사 사야도가 우뻘사나의 정수를 가르친다. (041567-2841)

●보리수선원 우뻘사나 기본수행 및 집중수행=서울 보리수선원이 6월 16~21일 110차 기본수행을 진행한다. 수행시간은 매주 월~토 오전 10시~12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열린다. 참가비는 5만원. 6월 14~21일에는 110차 집중수행이 계획되어 있다. 오후 4시 30분 시작해 오전 10시에 끝나는 과정이다. 참가비는 10만원. 이에 앞서 5월 12일 오전 10시 보리수선원 수행회에서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가 봉행된다. (02517-284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받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환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인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저층 승강 장치(등포 조정 작업)



연등 저층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작업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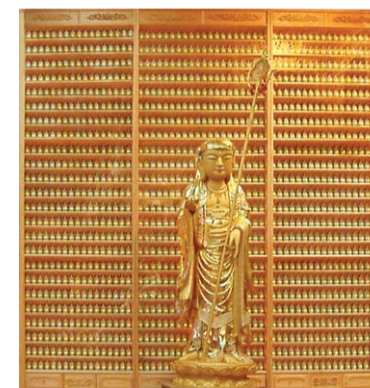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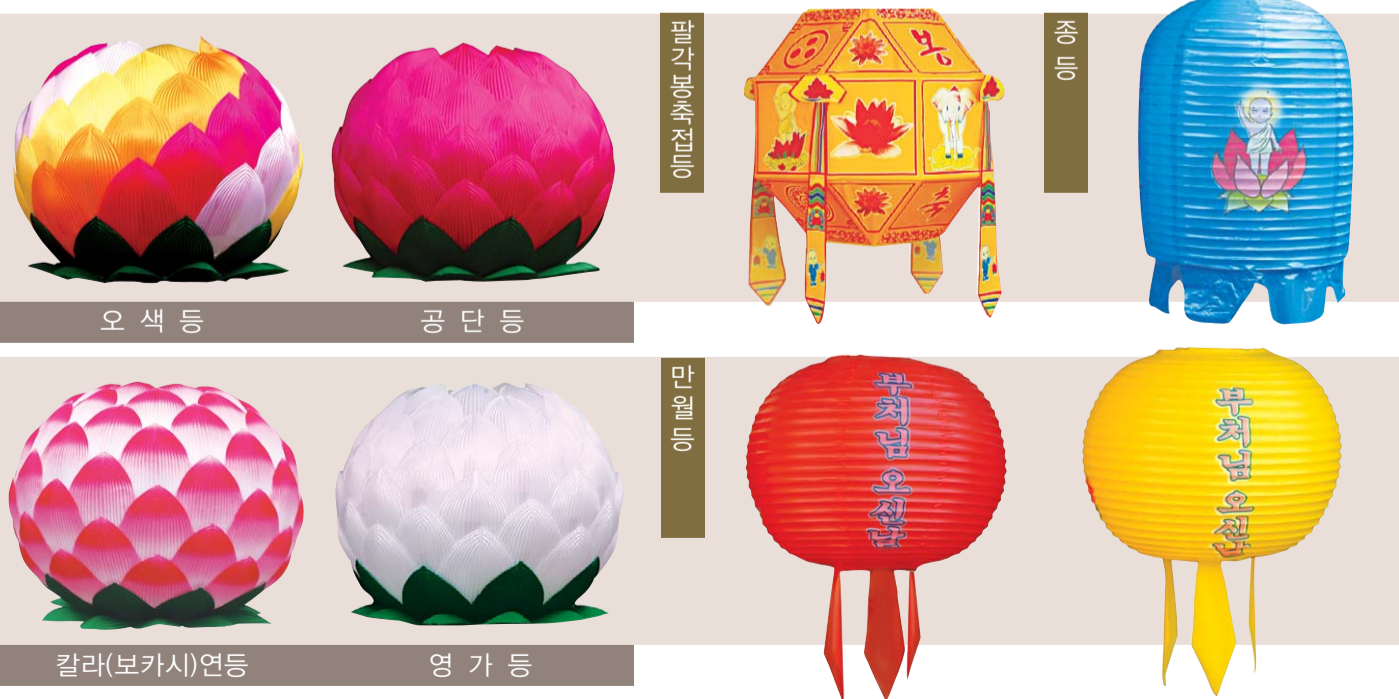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미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경기도 하남시 교신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